

##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생산위한 글로벌 수준의 GMP 센터 완공

셀리드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GMP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과 항암세포유전자치료제 상업용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GMP 공장의 완공식을 개최했다.



셀리드는 글로벌 수준의 백신, 벡터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GMP센터 구축을 목표로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SK V1 타워에 착공한 GMP 센터의 완공식을 개최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완제품장은 전용면적 340평 규모로 약 100억원이, 백신 및 벡터공장은 전용면적 275평 규모로 약 70억원, 총 약 170억원을 투자하였다. 그 결과 연간 1,000 lot의 세포유전자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의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1,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자체 원천기술인 셀리박스(CeliVax)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과 항암면역치료백신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전초기지를 완성하게 되었으며, 오는 2021년 GMP 허가를 득한 후, 코로나19 백신과 BVAC-C 2b상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GMP센터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제약사와의 공동개발, 크로스-라이선싱,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셀리드는 계획했던 바와 같이 금번 GMP센터 완공을 통해 '셀리드 백신 및 벡터 GMP'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그리고 'LG화학'을 통하여 COVID-19 백신 대량생

산 체계를 차질없이 이루어 가고 있다.

강창을 셀리드 대표이사는 완공식 기념사에서 "이번 GMP센터의 완공으로 우리 셀리드는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냄으로써 백신주권을 실현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셀리드는 지난 4월 'AdCLD-Cov19' 예방백신의 개발을 개시한 이후, (주)LG화학 및 안동 동물세포실 증지원센터와 백신개발, 생산, 상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020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중 신/변종 바이러스대응 원천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본격적인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COVID-19 백신의 임상 1/2a상 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으며, 임상시험 및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